

임실군 국비확보 알찬 결실

중앙공모사업 18개 선정 총 197억원 예산 확보 관광명소화 개발 본격화



심민 임실군수

임실군은 8월과 9월 중앙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에 132억원을 확보하는 등 올해 18개 사업에 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9월 현재 중앙공모사업 대응현황을 점검한 결과, 농림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내년도 예산 60억원을 확보했으며,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임실N치즈'가 최종 선정돼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군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을 통해 임실N치즈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이 국토부 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 예산 4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전북도가 주관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오수외견의 희생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반려동물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구)오수역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군은 그동안 중앙공모사업의 완벽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월 대응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심 민 군수가 올해 10여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대응활동을 펼쳐왔다.

심 민 임실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시점에 중앙공모를 통한 국비확보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공모신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올해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야간경관 연출로 랜드마크 피한다

경천교 아치형 조형물 설치 1.2km 구간 산책로 조성 박차



순창군은 경천변 야간경관 조형시설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19억5000만원을 투자, 10월경 착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천변 야간경관 조감도

순창군이 경천변에 야간경관 조형시설 설치를 통해 순창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천변 야간경관 조형시설 설치 사업은 경천교 아치형 조형물과 산책로 1.2km 구간에 야간경관 조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민들이 밤에도 아름다운 조명과 자연이 만들어낸 환상적 경관을 보면서 산책하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 19억 5천만원이 투자되며 10월경 착공해 내년 상반기 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경천교 조형물 설치 사업이다. 경천교는 길이 80m의 순창 관문 교량으로 경천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기적 선형과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5.5m 높이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순창의 심벌과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순창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만들어 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km 벚꽃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이색적 산책길 조성도 기대되는 사업 중 하나다. 군은 천변 방향으로 전망데크를 설치해 다양하게 주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 및 다양한 디자인의 조형물도 만든다. 특히 천변 전망데크에 벗어나 조형물과 조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레이저 조명과 고보조명을 설치해 산책길 바닥에 다양한 조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벚꽃이 필 때는 벚꽃과 은한 빛이 환상적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기능성도 높인다.

황숙주 군수는 "경천은 순창을 관통하는 지방하천으로 군민들에게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면서 "경천을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산책길로 만들어 군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자리 창출 '안간힘'

14일 채용박람회 개최 17개 구인기업 참여 2000여명 채용 목표

남원시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순창문화회관에서 2017 남원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남원시와 고용노동부(남원고용센터)가 공동주최로 지역내 구인기업 17개사가 참여하며 현장에서 1:1 면접 및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으로는 (주)지엠에프, (주)보감, (주)하이코리아 등 제조업 12개사와 전라북도 남원요양원 등 의료업 3개사, (주)랜드파크 컨설팅 리포트 등 서비스업 2개사 등이 참여로 청년, 여성, 장년 등 다

양한 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면접 채용관과는 별도로 전문인적성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메이킹, 금연클리닉, 체력측정, 건강 상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체험과 소상공인 창업, 병무상담 및 취업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컨설팅으로 구직자 참여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격증 등을 사전 준비하여 관심 있는 기업에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며 "이번 행사가 구직자와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축산농장 간판설치 지원

남원시는 축산농장의 간판 설치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접종, 적기 인공수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의 용이성 도모로 효율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자 '축산농장 간판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농가별, 사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던 간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간판 표준 도안을 배부하여 필수 정보만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타당성, 수요조사, 간판디자인 선정과정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42농가에 설치비용의 50%인 최대 50만원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전 축종 농가에게 시비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현재 30농가가 준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장 간판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촌경관 개선을 위해 급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간판설치를 원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자기 혈관 숫자 아시나요?"

임실군 레드써클 캠페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임실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써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 임실읍에 이어 5일 관촌장남을 맞아 유등면구가 많은 시장일대 및 터미널에서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지정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9대 생활 수칙과 대사증후군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나트륨섭취 줄이기와 금연, 절주, 적절한 영양섭취, 운동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을 유도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안전의 시작... 벌초용 예초기 무상점검

순창군 11일부터 29일까지 유등면 농기센터서 진행

순창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벌초에 나서는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예초기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 점검은 11일부터 29일까지 유등면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수리장소를 본소 및 서부권 임대사업소에서도 병행 실시해 썬치, 북용 등 서부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성묘객 및 벌초 농가의 안전한 장비 사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해마다 예초기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점검 일수를 15일로 확대 했다.

동력예초기 부품 중 쉽게 마모되는 예초기 날 및 플러그 등을 교체해 주고 정비 시 소모되는 부품 중 2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단단한 사고예방 교육도 진행해 예초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끄깝다"

순창군,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순창경찰서 범죄예방전담팀(CPO)은 지난 4일부터 순창군 소재 터미널, 재래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 30개소를 대상으로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순창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여성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합동 점검 후 범죄 취약요인이 많은 화장실 1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창군과 협업하여 여성안심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안심벨은 위급상황시 여성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외부 경보음이 작동하면서 경찰서 상황실로 위치정보가 전달되어 순찰차까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최적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여성대상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여성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심벨 설치 등 치안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